

번역학의 영어화에 관한 고찰 — 스넬 혼비(Snell-Hornby)를 중심으로 — *

이 향
(한국외국어대)

1. 들어가는 말

유럽의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예를 들어 보스니아어를 모국어로 하고 독일어로 교육을 받고 러시아어를 제2업무언어로 가지고 있으며, 기초적 프랑스어 지식이 있고 (제5외국어로)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다중언어 구사자는 [번역학]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됨을 의미한다. 이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단지 하나의 외국어만 잘하는 영어과 학생보다는 언어적으로 훨씬 유능하고 따라서 번역학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Snell-Hornby 2010: 99).

상당히 도발적으로 느껴지는 위 인용문은 독립학문으로서의 번역학 확립에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핵심적 기여를 해 온 번역학자 스넬 혼비¹⁾의 진단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스넬 혼비의 문제제기는 인용문 첫머리에 명시된 것처럼 저자의 연구공간인 유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스니아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연구자를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한국 상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주된 연구언어가 아니면서도 영어로 읽고 쓰는 것을 당연한 능력으로 요구받는, 필자를 포함한 소위 ‘제2외국어’ 전공자들이 번역학의 공간에서 간혹 느끼는 갑갑함을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스넬 혼비의 비판은 묘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스넬 혼비의 주장대로 번역학은 영어화(Anglicization)되고 있는가? 번역학이 영어화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 현상은 유럽 번역학계에 국한된 것인가? 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번역학계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일까?

사실 오늘날 전지구적 링구아프랑카로 부상한 영어(이하 ELF: English as a Lingua Franca)에 관해서는 이미 학계에서 꾸준한 논의가 있어 왔다. ELF 관련 연구들은 주로 영어와 외국어교육, 다양한 언어들 간의 위상 차이 문제, 언어나 양성 보존 문제 등에 주목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번역학계에서도 국제소통어로의 영어의 부상이 통번역 실무, 통번역 교육, 혹은 통번역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²⁾ 그런데 스넬 혼비는 통역이나 번역 실무가 아닌 ‘번역학’이라는 학문공간을 중심에 두고 영어화의 문제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스넬 혼비의 관심사는 영어의 지배적 사용이 야기하는 번역학 담론의 질적, 내용적 변화 문제이며, 이러한 고찰은 결국 번역학에 대한 방법론적, 인식론적 고민, 다시 말해 번역학을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번역학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번역학 연구자들이 간과할 수 없는 화두인 것이다.

-
- 1) 벨기에의 번역학자 조세 랑베르(José Lambert)는 스넬 혼비의 *The Translation Studies: An interdisciplinary* (1988/1995)야말로 번역학이 독립학문으로 확립되는데 일종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냈다고 회고한다. (Lambert, Althoff & Fleuri 2010: 211-213).
 - 2) 번역학 전문 저널인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는 2013년 7(2)호 전체를 링구아 프랑카의 문제에 할애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도 상당수의 논문들은 링구아프랑카와 번역, 학문공간에서의 영어사용, 다언어주의 등에 할애되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아래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영어로 출판하는 스넬 혼비가 번역학의 영어화 문제를 제시한 구체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번역학이 ‘영어화’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스넬 혼비의 문제제기는 번역학의 태동이나 발전 과정이 한국과 전혀 다른 유럽을 배경하고 있으므로, 국내 번역학 상황 속에 영어화 문제를 재맥락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한된 코퍼스를 통해서나마 국내 번역학계에서도 ‘영어화’ 현상이 목도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셋째, 이상의 고찰들을 토대로, 번역학의 영어화 현상을 번역학의 향후 발전방향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고,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구체적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2. 스넬 혼비의 문제제기

스넬 혼비의 문제제기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저자의 학문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국 태생으로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스넬 혼비는 영국과 오스트리아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에 능통한 번역학자로 영어와 독일어를 토대로 한 문학연구와 언어학 연구에서 출발하여 번역학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번역학자 스넬 혼비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 그녀의 저서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는 번역학이라는 분과학문이 존재하지 않았던 1987년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을 출판한 것으로 번역학(Translatons Studies)라는 신생 학문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베스트셀러이다. 이후 1992년 유럽번역학회(EST: European Society for Translation Studies) 초대 회장을 거쳐 왕성한 활동을 계속 해온 스넬 혼비는 학위 논문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언어학이나 문학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문학과 언어학, 실무와 이론 간의 간극을 줄이는데 지속적 노력을 쏟아 온, 진정한 의미의 ‘통합적 접근’의 실천자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스넬 혼비 자신은 비록 오스트리아를 근거지로 하여 대부분의 연구 활동을 해 왔으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면서 유럽의 주류 언어라 할

수 있는 독일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한 연구자이다. 그러한 스넬 혼비가 ‘번역학의 영어화’ 문제를 제기한 배경은 무엇일까?

사실 번역학의 영어화에 대한 스넬 혼비의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저자는 이미 2006년 자신의 저서에서 1990년대의 번역학 담론을 경험적 전환(empirical turn)과 세계화 전환(globalization turn)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한 후, 소위 영어 제국(The Empire of English)이 되어가고 있는 번역학계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스넬 혼비는 영어로 발표되고 영어로 논의되는 번역담론은 번역학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며, 따라서 번역학 = 영어 번역학이라는 잘못된 등식이 만들어져서는 안됨을 강조한다(Snell-Hornby 2006: 144). 뒤이어 저자가 2010년에 발표한 ‘Is Translation Studies going Anglo Saxon?’이라는 보다 노골적 제목의 논문에서는 번역학이 세계화(globalization) 되는 과정에서 목도되는 영어화 현상을 번역학이 언어학으로 회귀(“back to linguistics”)하려는 욕망의 발로, 더 나아가 번역학을 ‘영어’라는 링구아 프랑카 안에 가두려는 시도로 해석한다(Snell-Hornby 2010: 97-98). 이 논문에서 스넬 혼비는 영어가 단순한 소통수단(means of communication)을 넘어서서 점차 번역학적 논의의 대상(object of discussion)이 되는 현실에 대해 경고한다(Snell-Hornby 2010: 98). 즉, 번역학 연구에서 제시되는 대다수의 예문이 ‘영어’ 예문들이고, 소위 ‘국제’ 저널을 표방하는 번역학 전문 학술지의 상당수가 영어로 쓰여진 논문만을 수락한다는 점, 그리고 다수의 학회와 출판물이 영어로, 주로 영어학과 내에서 영어학과에 의해(in English and by Departments of English) 주도되는 현실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스넬 혼비의 입장이다. 그리고 선택권이 별로 없는 비영어 전공자들이 어쩔 수 없이 조악한 영어로 논문을 써야 하는 현실, 영어가 유창하지 못한 연구자들이 학계의 논의에서 배제

- 3) 사실 번역학의 영어화 문제를 대변에 ‘언어학으로의 회귀’와 연결시키는 이 대목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으로 느껴진다. 이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There are of course publishers who do meanwhile list Translation Studies separately in their catalogues and have introduced programmes which emphasize its disciplinary profile, particularly those publishing outside English-speaking countries, but over the last few years there have been some disquieting signs of uncertainty, involving not only a tendency “back to linguistics”, but a trend, as seen above, which positions Translation Studies solely within the range of English. (Snell-Hornby 2010: 97-98).

되는 현실을 개탄한다(Snell-Hornby 2010: 99).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스넬 혼비가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 어떤 것, 다시 말해 그녀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영어’로 쓰여지고 논의되는 번역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벨기에 루벤 대학교(KU Leuven)가 주최하는 번역학 여름학교에 참가했던 알리스 레알(Alice Leal)의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레알은 스넬 혼비와 번역학의 영어화에 관해 나누었던 대화를 아래와 같이 전한다.

이 문제를 스넬 혼비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스넬 혼비는 기술번역학(DTS)이 지배적 위상을 점하고 독일 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이유는 전자가 영어로 쓰여지고 후자는 독일어로 쓰여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넬 혼비는 학술 담론, 특히 (역설적이게도) 번역학 담론에서 영어가 득세하는 현 상황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Leal 2010: 201)

결국 스넬 혼비의 ‘영어의 지배’는 번역학에서의 ‘DTS’의 지배, 그리고 독일어로 쓰여졌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스넬 혼비가 판단하는 독일 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한 아쉬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입장은 2011년의 한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람들이 자신의 학파에만 관심을 두고 다른 접근들, 특히 다른 언어로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접근들을 무시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DTS의 경우가 특히 그러한데, DTS는 영어권에서는 정통적 접근으로 인정받고 있고, 현재 번역학은 사실상 영어가 지배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영어로 쓰여진 연구들은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논의들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Snell-Hornby, Althoff & Leal 2011: 368)

오늘날 도착어텍스트 중심적 접근(TT oriented approach)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스코포스 이론과 기술번역학의 위상 차이는 두 이론이 쓰여진 언어, 구체적으로는 독일어와 영어의 파급력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해석이다.⁴⁾

4) 번역학 내에서 스코포스 이론과 DTS의 위상 차이에 대한 스넬 혼비의 원인분석은

이상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스넬 혼비가 DTS와 스코포스 이론 간의 구체적 비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된다. 스넬 혼비가 우려하는 것은 번역학이 당연히 영어를 토대로 하는, 영어로만 쓰여지고 읽혀야 하는 학문인 것으로 오해되는 현실, 그리고 그 결과 그 외의 다양한 접근이나 이론들이 무시되는 현실인 것이다.

그런데 번역학이라는 학문이 영어 안에 갇혀 전개되는 것을 우려하는 스넬 혼비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어의 막강한 위상이 어디 번역학에서만 목도되는 현상인가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이러한 반박을 예상한 듯, 스넬 혼비는 번역학만은 이러한 영어 제국에서 예외여야 한다고 맞받아친다. 번역학이라는 학문은 언어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학문이기, 의학이나 물리학에서 영어를 공통어로 쓰는 것과 번역학이 영어로만 논의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2006: 144). 왜냐하면 번역학이 하나의 언어로만 논의되는 것이야말로 번역학의 진정한 목표 자체를 위협하는 것(defeating the very purpose of Translation Studies)이기 때문이다(Snell-Hornby 2010: 99). 바로 이 대목이 스넬 혼비의 문제제기가 번역학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과 조우하는 지점이다. 번역학의 영어화 문제는 결국, 번역학이 어떤 학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녀의 입장, 다시 말해 다양한 언어들 사이의 소통을 다루는 열린 학문이어야 한다는 내적 확신과 연결되어

전적으로 유럽 상황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는 스코포스 이론의 주저인 『번역행위의 목적성』, 『일반 통번역 이론 기초』 등이 번역 소개되어 있는 반면, 기술번역학의 대표적 이론서인 뚜리(Gideon Toury)의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1995), 앙드레 르페드르(André Lefevere)의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1992), 테오 허먼스(Theo Hermans)의 *Translation in systems* (1999) 등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오히려 스코포스 이론이 최소한 그 접근성에 있어서는 DTS보다 앞서 있다고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도 있겠다. 한편 스코포스 이론이 DTS보다 주목을 덜 받은 것이 단지 언어적 문제 때문이라는 스넬 혼비의 주장에 대해 번역학의 성립 초창기부터 스넬 혼비와 함께 해 온 조세 랑베르조차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랑베르는 영어화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DTS의 목적이 독립학문으로서의 번역학의 구축에 있었던 반면, 스코포스 이론은 번역교육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론이었기에, 그 학문적 파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Lambert, Althoff & Fleuri 2010: 231).

있기 때문이다. 스넬 혼비는 적어도 서로 다른 언어 간의 소통을 연구하는 번역학 안에서는 다양한 언어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와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스넬 혼비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번역학이 특정언어로만 연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스넬 혼비의 위기의식에 공감하면서도 다음의 세 가지 측면과 관련하여 추가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로 해명되어야 할 것은 스넬 혼비의 ‘영어화’ 비판이 영어와 기타 유럽 언어들(특히 독일어)을 지나치게 대립구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다. 이런 의혹을 염두에 두고 스넬 혼비의 문제제기를 해석해 보면, 그녀의 영어화에 대한 경고는 좁게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을 중심으로 주로 독일어권에서 논의되는 소위 ‘기능주의적’ 접근의 입지 강화를 도모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고, 만일 이 해석이 옳다면,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유럽이나 영미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이중으로’ 소외시키는 이러한 관점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스넬 혼비는 번역학의 영어화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언어 국가가 많은 유럽 국가들의 현실을 종종 예로 들고 있으며 그녀가 영어에 맞서 부각되어야 하는 언어로 언급하는 것도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를 위시한 유럽언어들이다 (Snell-Hornby 2006: 141, Snell-Hornby, Althoff & Leal 2011: 378).

따라서 우리는 스넬 혼비의 문제제기를 선불리 국내 번역학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설령 국내에서 영어화의 징후가 포착된다 하더라도, 그 양상이 언어권, 문화권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스넬 혼비는 번역학 안에서 ‘영어가 소통수단이 아닌 논의대상이 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⁵⁾ 이는 스넬 혼비가 어문학

5) 다소 다른 맥락이겠으나, 하우스(House)는 링구아 프랑카로서의 영어의 부상이 다언어주의를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며, 단지 의사소통만을 위해 사용되는 소통언어(languages for communication)와 특정 언어그룹에 속한 화자들의 언어문화적 자산을

에 기반을 둔 번역연구자(Researchers in translation)과 번역학자(Translation Scholars)를 명확히 구분하며, 전자의 경우를 번역학 바깥에 위치시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유럽번역학회 창설 당시의 목표가 대조언어학이나 비교문학으로부터 번역학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할 때, 우리는 스넬 혼비가 우려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다(Snell-Hornby, Althoff & Leal 2011: 366). 스넬 혼비는 언어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언어학과 달리 번역학에서 언어는 단지 ‘수단’에 머물러야 하며, 언어와 문화 사이를 가로지르는 메시지 전달로서의 번역행위가 번역학 담론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스넬 혼비에게 있어서 번역학의 영어화 문제는 독립학문으로서의 번역학의 존재 이유와도 연결되는 핵심적 화두인 것이다 (Snell-Hornby 2011: 371).

그런데 스넬 혼비 스스로도 인정하듯, 실제로 번역학 내부에서 진행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언어가 단순한 소통수단인 경우와 논의대상인 경우를 구분하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치 않다(Snell-Hornby, Althoff & Leal 2011: 371). 사실 유럽에서 70년대에 번역학의 학문적 확립에 가담했던 연구자들은 대부분 어문학 전공자였으며, 이들의 번역학 연구는, 적어도 초창기에는 언어학과 문학에서의 번역연구방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이는 번역학의 도입 자체가 (영)어문학 전공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경우, 번역학 성립 초기, 더 나아가 오늘날까지도 영어권 연구자가 영어 예문을 사용하여 영어의 특성을 설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번역행위의 본질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번역학 담론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들이 정확히 어느 지점부터 스넬 혼비적 의미에서 ‘번역연구자’가 아닌 ‘번역학자’로 분기되는지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 분류되건, 이러한 연구들이 한국 번역학의 정초가 되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스넬 혼비의 지적을 다소 유연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자가 우려하는 것은 번역행위가 ‘단지’ 영어로만, 혹은 ‘가능하면’ 영어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결과 번역학을 여전히 영문학이나 영어학의 종속학문으로 간주하려는 시도이다. 한마디로 영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번역

구성하고 정체성의 요소들을 담고 있는 언어(languages for identification)를 구분한다. 즉, 영어는 단지 소통언어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개별 언어의 고유함이나 다언어주의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House 2003: 575).

학이 특정 언어와 과도하게 밀착되는 현상, 그리고 그 결과 다양한 언어들 안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번역(학) 담론에 번역학이 둔감해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셋째, 번역학의 영어화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진단 혹은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 ‘영어제국(Empire of English)’, ‘영어화(Anglicization)’, ‘균질화(Homogenisation)’, ‘단일언어적 접근(Monolingual approach)’, ‘영어의 독점(Monopoly of English) 등 다양한 개념들 간의 취사선택과 정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특정 국가나 언어권 내에서 번역학이 영어화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할 지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마디로 ‘번역학 연구의 대다수가 ‘영어’ 예문들이라거나 ‘국제’ 저널을 표방하는 거의 대부분의 번역학 전문 학술지들이 영어 논문만을 수록한다는 점, 그리고 다수의 학회와 출판물이 영어로, 주로 영어학과 내에서 영어학과에 의해 (in English and by Departments of English) 주도되는 현실이라는 포괄적 진단들을 측정 가능한 지표들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 작업 역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함은 자명하다.

4. 한국의 번역학, 영어화되고 있는가?

스넬 혼비의 문제제기를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번역학의 영어화 문제가 국내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제기된 적이 없으며, 따라서 향후 국내의 번역학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현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국내 번역학 담론들에서 영어화의 징후가 확인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국내 번역학의 영어화 여부를 정확히 진단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번역학’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번역연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있는 코퍼스를 설정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번역학의 범위,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어화’ 현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정의와 측정 지표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 영어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코퍼스가 선정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통시적 접근과 공시적 접근,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간의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밖에도 연구범위나 방향과 관련한 수많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분명,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대대적 연구에 착수하기 위한 예비적 조사 차원에서, 국내 번역학의 현 상황을 크게 번역학의 학문 편제상 위치, 번역학 박사학위과정 이수자의 언어별 구성, 『번역학 연구』지에 실린 논문의 언어별 구성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4.1. 학문 편제상의 문제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용하는 학술연구분야분류표는 1999년 처음 마련된 이후 큰 폭의 개편 없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⁶⁾ 학술연구분야분류표의 체계도를 살펴보면, 번역 혹은 번역학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복합학 등 8대 분류체계⁷⁾ 중 인문학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김정우 2012: 2). 현재 학문편제상에서 번역학의 위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인문학 > 언어학 > 번역
 인문학 > 문학 > 번역문학
 인문학 > 영어외문학 > 영어통번역학
 인문학 > 통역번역학
 인문학 > 통역번역학 > 통역번역
 인문학 > 통역번역학 > 번역
 인문학 > 통역번역학 > 통역

한마디로 현재 (통역)번역학은 언어학, 문학, 인문학의 하위분야로 ‘분산편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산편제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인지, 혹은 번역연구의 발전 경로, 다시 말해 처음에는 언어학이나 문학을 통하여 접근되던 번역이 점차적으로 통역번역학이라는 독립적 학문범주로 접근되기 시

6) 학문편제와 관련된 연구로는 1999년 11월과 2000년 5월에 수행한 「학문분류표 재설정에 관한 연구」, 2006년 6월에 수행한 「학문 표준분류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전략 기획 연구」, 2009년 2월에 수행한 「연구분야 분류표 재설계 방안연구」 등이 있다.

7) 이와 관련하여 2013년 3월 기준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표를 참조할 것.

작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번역연구에 접근하는 다양한 경로가 여전히 공존하는 오늘날의 과도기적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편제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겠다. 다만 번역학이 영어와 문학의 하위분류로 들어가 있는 반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소위 제2외국어권의 하위분야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 따라서 영어가 아닌 소위 제2외국어들을 토대로 번역을 연구하는 경우, 언어와 무관하게 통역번역학이라는 포괄적 범주로 분류되거나 혹은 해당언어권의 문학 혹은 언어학의 하위분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스넬 혼비의 관점에서는 번역학 자체를 ‘영어’와 결속시키는 이러한 편제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현재의 편제에 프랑스(어)통번역학, 독일(어)통번역학을 추가하는 것이 옳은가? 혹은 통번역학이라는 통합적 학문범주가 마련된 현 상황에서 존재의미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 ‘영어통번역학’을 삭제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한 결단은 누구의 몫이며 어떠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개진되고, 그 과정에서 번역학의 성격, 범위, 목적,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인식론적 논의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4.2. 번역학 박사학위자 배출 현황

사실 (통역)번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편제가 필요해진 것은 ‘번역학’이라는 신생학문의 박사학위과정이 국내에 개설된 시점과 궤를 같이 한다. ‘번역학 전공’이 국내 학계에 도입된 것은 2000년경으로,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내에 최초의 번역학 전공 석박사 과정이 개설된 것이 2000년 3월이고, 같은 해 9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 2005년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에 번역학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연구언어들은 영어에서 기타 언어들로 점차 다양해져서, 초기에 영어전공자들만을 대상으로 개설되었던 번역학 박사학위과정은 외대에서는 8개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이화여대에서는 4개 언어(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연구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의 경우, 2013년 말 기준으로 박사학위 취득자 30명 중 17명이 영어전공자, 나머지 13명이 독일어를 제외한 기타 6개

언어 전공자이다.

〈표 1〉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 취득현황

전공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한영	1			1	3		3	1		4	13
한불			1								1
한독											
한서								1	1		2
한노	1	1						2			4
한일	1					1		1		3	6
한중								1		2	3
한아							1				1
계	3	1	1	1	3	1	4	6	1	9	30

〈표 2〉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 취득현황

전공	년도	2010	2011	2012	2013	계
한영		1		1	3	5
한불		1				1
한중			1			1
한일			1	1		2
계						9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과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에서 배출한 총 39명의 번역학 전공자중 영어를 연구어로 하는 전공자가 18명이며 여기에 영문학과 내부에 번역학 전공 트랙이 개설되어 있던 세종대학교,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배출한 연구자들의 수치⁸⁾를 포함하면, 대략 전체 번역학 전공자 62명 중 42명이

8) 세종대학교와 동국대학교는 공히 영어문학과 내부에 박사과정을 개설한 경우로, 세종

영어를 연구언어로 하는 연구자들이다.

그런데 이상의 자료는 국내 번역학의 영어화 여부를 진단하는데 별 의미가 없는 통계일 수도 있다. 번역학의 영어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내려면, 전공자들의 연구언어에 대한 단순 통계보다는, 개별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주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정성적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사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를 연구어로 하는 번역학전공자가 박사논문 주제로 영미권 혹은 영어권의 저자들의 이론들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단순히 특정 언어 전공자가 몇 명이라는 사실이 연구 주제의 다양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 외대 통번역대학원 박사과정의 경우, 개설 초기에는 전공언어를 불문하고 공통 과목 위주의 교육이었으며, 언어별 강의가 개설된 것은 이후의 일이다. 다양한 언어 전공자들이 한데 모여 수강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영어로 쓰여진 텍스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설령 언어권 별로 해당 언어권의 강의를 개설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해도 당시로서는 적절한 교수자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프랑스어 전공자가 번역학 박사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은 영어권 전공자들과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박사학위논문의 주제 역시, 전공언어권의 번역담론과 관련된 주제보다는 언어특수적이지 않는 보편적 주제들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마디로, 언어의 다양성이 연구의 내용적 다양성을 자동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여기서 우리는 번역학 박사과정 커리큘럼이 향후 번역학 연구 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번역학 박사과정의 교과과정 구성이 언어통합적, 보편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은지, 혹은 다양한 언어권 별로 언어 특수적 과목들이 개설되는 것이 옳은지, 혹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옳은지 등의 문제가 단순히 교육편제상의 문제가 아닌 번역학의 향후 연구 스펙트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국내 번역학 박사과정 개설 이후 14년여가 지난 지금, 현재의 교과과정에 대한 중간 평가 및 심층적 검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교의 경우 현재까지 총 21명의 번역학 전공자를 배출하였다. 동국대학교의 경우 2013년 1명, 2014년 1명, 총 2명의 번역학 전공자(영어)가 배출되었다.

4.3. 『번역학 연구』 게재 논문의 연구언어별 분류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양한 전공언어를 가진 연구자들이 배출됨에 따라 최근 들어 비교적 다양한 언어권에서의 번역이론이나 개념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본지 『번역학 연구』의 창간 이래 지난 13년간 게재되었던 논문들을 언어별로 분류해 보았다. 여기서는 우선 저자의 전공언어, 키워드, 본문 중 예문의 언어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분류하되, 한 개 이상의 외국어(예를 들어 프랑스어와 영어)를 비교 분류하는 연구, 논문에서 주로 인용하는 이론과 예시문의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독일의 스키포스 이론을 영한 번역 분석에 적용하는 경우), 특정 언어와 무관한 개념적, 이론적 성찰 등 분류하기 모호한 논문들은 모두 ‘기타’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 『번역학 연구』 게재 논문 언어별 분류 (2000-2014년 상반기/총 448편)

언어	편수	비율
영어	313	69.8%
중국어	24	5.3%
일본어	23	5.1%
프랑스어	21	4.6%
독일어	2	0.4%
스페인어	1	0.2%
아랍어	1	0.2%
러시아어	0	0%
기타	63	14%
합계	448	99.6%

정확한 통계자료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으나, 대략 영어권의 연구자, 영어로 쓰여진 저서나 영어권 저자들의 논문을 인용한 연구들이 전체의 69.8%를 차지하였다. 한마디로 영어권의 저자를 인용하고, 영어로 예문을 제시하거나 혹은 영어로 쓰여진 논문들이 전체 연구의 대략 7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타 언어권의 경우,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각각 대략 5% 내외)를 제외하고는 그 비중이 지극히 미미했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극단적 ‘불균형’은 연구

언어의 다양화가 연구주체의 다양화로 자동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증거로 이해할 수 있겠다.

사실 영어 아닌 다른 언어들이 번역학 안에 어떻게 스며들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소위 제2외국어를 연구언어로 하는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실존적’ 고민이다. 이들은 번역학의 공간 안에서 스스로의 역할이나 기여에 대해 종종 자문하게 된다. 단순히 영어로 읽고 쓰는 일이 영어 전공자만큼 자유롭지 않은데서 오는 실무적 불편함 때문만은 아니다. 영어로 쓰인 문헌들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없이 번역학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그러한 불편함은 시간과 함께 극복될 수 있고 또 극복되어야 한다. 연구 성과물을 영어로 발표해야 하는 부담 역시, 약간의 시간과 노력, 비용(번역료, 감수료)을 투자하면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연구어로 삼고 있는 연구자가 번역학 내부에서 영어권 연구자들과 내용적으로 전혀 차별성이 없는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 현상, 그리고 이것이 번역학에 장기적으로 끼치게 될 영향이다. 어찌 보면 이 문제는 비영어권 연구자 뿐 아니라 번역학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문제야말로 필자가 늘 고민해왔던 번역학의 연구방법론, 번역 인식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들과 동시에 교접하는 화두이자 번역학의 현 발전 단계에서 건너 뛸 수 없는 핵심적 질문이기 때문이다.

5. 몇 가지 제언

오늘날 링구아 프랑카로서의 영어의 위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문은 어디에도 없다. 최대한의 독자 확보가 서바이벌의 조건인 오늘날 출판 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논문이건 저서건 가장 많이 읽히는 언어로 쓰여야 한다는 논리를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로 다른 언어 간의 소통, 소위 ‘언어간적 행위’에 밀착된 학문인 번역학이 정작 학문 내에서 언어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에 소극적인 것이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국내에 번역학이 정착되는데 헌신한 영미 문학 및 영미 언어학 전공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은 본고의 의도가 아니다.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국내에서 번역학은 여전히 어문학의 종속 학문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번역학이 비로소 독립학문으로 서게 된 지금, 번역학 안에서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여 그것이 내용적 풍요로움으로 연계되도록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제2외국어 전공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인지도 모른다.

스넬 혼비가 제시하는 해결책들은 의외로 단순하다. 번역학 연구자들이 가능하다면 두 세 개의 언어어를 보유하도록 장려하고 학회나 저널에서 영어 아닌 언어로 발표할 기회를 늘리며 영어로 된 핸드아웃이나 발표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 논문 서지정보에서 반드시 원서의 서지정보를 제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비영어권 연구자들을 위한 영어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는 것 등등이다(Snell Hornby 2010: 101). 한마디로 영어 아닌 다른 언어로 기고, 발표할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스넬 혼비는 진정 이런 노력만으로 번역학의 영어화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답은 부정적이다. 물론 영어 아닌 언어로 기고, 발표할 공간을 늘리는 작업은 시급하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러한 공간이 부족하나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학계의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 조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공간을 의미 있는 내용들로 채우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작업이 번역학계 전체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제2외국어를 언어어로 하는 연구자가 영어전공자 혹은 영어권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지점을 건드릴 수 있을 때, 그리고 번역학 연구자들이 영어 아닌 다른 언어로 쓰여진 번역담론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진지한 관심을 보이게 될 때, 비로소 유의미한 협력과 공생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2외국어를 언어어로 하는 연구자들이 번역학 내부의 핵심적 담론들을 이해하는 한편, 자신의 전공언어권의 번역담론들을 꾸준히 살피고 소개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양한 언어권의 핵심적 번역담론을 담은 주저들이 조속히 국내 번역학계에 소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각 언어권별 전공자들이 해당 언어권의 연구를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번역학 박사과정에서의 교육 내용을 점검하고, 공통 교과과목 외에, 언어권별 번역담론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한 장치들

이 궁극적으로는 보다 다양한 학위논문주제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번역학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긴장이 존재한다. 실무자와 이론가 사이의 긴장, 문학번역과 실용번역 사이의 긴장, 혹은 개념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 간의 긴장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긴장들을 관통하는 핵심적 화두는 번역학의 영역 문제, 다시 말해 좁고 제한적인 번역학을 지향하는 입장과 넓고 확대된 번역학을 추구하는 입장간의 대치이다. 예를 들어 통번역 실무경험이 없이는 통번역을 연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든지, 혹은 특정 학위 없이는 번역학을 연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전자에 속한다. 이러한 ‘축소주의적’ 지향과 무관하게, 번역학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자신감의 결여에서 온 축소주의자들의 목소리는 번역학의 영역 확장이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면 잦아들게 될 것이다.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이다.⁹⁾ 스넬 혼비는 여러 차례 비트겐슈타인의 이 유명한 문장을 언급한다. 번역학이라는 학문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필자에게, 필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권의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들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들 덕분에 내 언어의 한계를 부분적으로나마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형식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기술번역학(DTS)의 뿌리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스페인의 신대륙 정복기에 통역과 번역이 낯선 타자와의 관계맺음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번역윤리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없다. 프랑스 철학자 들뢰즈, 번역철학자 베르만을 이해하지 못하면 베누티의 이국화(foreignization)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오늘날 번역학의 주류 이론들은 영미권만의 이론도, 특정 국가의 산물도 아니다. 번역학은 다양한 언어권에서 온 문학연구자, 언어학자, 번역가, 철학자 간의 부딪힘 속에서 탄생하였다. 번역학의 영어화를 제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극도로 복잡한 문화적 교직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번역이 수행해 온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어 아닌 다른 언어권의 번역 담론을 번역학 안으로 초대해야 할 것이다.

9) “The limits of my language are the limits of my world” 독일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Die Grenzen meiner Sprache bedeuten die Grenzen meiner Welt” (Wittgenstein 1989: 136). (Snell-Hornby 2010: 99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 김정우 (2012) 「한국의 번역학 연구와 국어학의 몇 과제」, 『우리말글』 56: 1-41.
- 설성수 (2006) 「학문 표준분류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전략기획 연구학문분류표
표 재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정책연구-2005년-06, 연구기관:
한남대학교).
- 안인경, 정혜연, 이정현 옮김 (2010) 『일반 통번역 이론 기초』, 서울: 한국외국
어대학교 출판부 (Reiß, K. & Vermeer, H. J.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 (1991/1984). Nyemeyer: Verlag).
- 정연일, 주진국 옮김 (2006). 『번역행위의 목적성』,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
부 (Nord, Christiane,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Translation Theories Explored)* (1997), Manchester:
Saint Jerome.
- 정연경 (2000) 「학문분류표 재설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7(2): 37-66.
- Leal, Alice (2010) 'Being a CETRA student: A Critical Account of the 2009
Summer School', *Scientia Traductionis* 7: 190-206.
- House, Juliane (2003) 'English as a lingua franca: A threat to multilingualism?',
Journal of Sociolinguistics 7(4): 556-78.
- Lambert, José, Gustavo Althoff & Lilian Fleuri (2010) 'Interview with José
Lambert', *Scientia Traductionis* 7: 207-34.
- Snell-Hornby, Mary (1988/1995)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 Benjamins.
- Snell-Hornby, Mary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nell-Hornby, Mary (2010) 'Is Translation Studies going Anglo-Saxon?', *Why
Translation Studies Matters? Ed. Daniel Gile, Gyde Hansen & Nike K.
Pokor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97-103.
- Snell-Hornby, Mary, Gustavo Althoff & Alice Leal (2011) 'Interview with
Mary Snell-Hornby', *Scientia Traductionis* 9: 365-88.

[Abstract]

Some reflections on the Anglicization of Translation Studies
— on the basis of Snell-Hornby's view

Lee, Hy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anglicization of Translation Studies on the basis of Snell-Hornby's critical comments on this phenomenon. Mary Snell Hornby worries about the dominant role of English in academic discourse and its effects on Translation Studies. Is Translation Studies becoming anglicized? Can we make the same diagnosis for Translation Studies in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answer these questions in three steps.

First, the ambiguity inherent to the notion of 'anglicization' is revealed, and more attempts are made to clarify what Snell-Hornby means when she criticises the monolingual approach, or the 'Empire of English', in Translation Studies. In addition, some limitations of her views are discussed.

Second, preliminary investigations are made to evaluate whether Translation Studies in Korea shows the symptoms of anglicization: the status of Translation Studies in the Korean knowledge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research fields proposed by the 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s analysed, the proportion of non-English majors in the doctoral programme of Translation Studies is measured and analysed, and 424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since 2000 are sorted according to the research language of each paper.

Finally, some recommendations are made to counterbalance the anglicization of Translation Studies and to promote a multilingual approach in TS, a discipline that should remain open to a diversity of cultures and languages.

▶ Key Words: Anglicization, monolingual approach, Lingua Franca, ELF (English as Lingua Franca), Mary Snell-Hornby.

이향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학과

leehyangmarina@gmail.com

관심분야: 번역학 연구방법론, 번역철학, 번역품질평가,

논문투고일: 2014년 8월 2일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14년 9월 15일